

[온누리35주년 온라인 선교간담회]

둘째 날(20201013) “교회개혁과 제자양육” 조별나눔 보고서

<강진아 조>

선교지에서 창의적으로 접근 해야 하는 부분들을 각자 사역에 따라 달라져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현지인과의 사역을 위한 직업학교가 예배모임과 동역자들과 함께

두 달 전부터 소그룹으로 현지인가정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되어 갔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사역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도 온라인 사역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자양육 교회개혁은 콘텐츠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부터 있어왔다. 인격적 관계가 같이 가
야한다. 인격적 관계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통해 제자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의 사역은 아니지만 현지인과의 사역속에서 사역의 동역자로서 예배모임으
로 제자양육과 섬김의 활동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선교지에서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을 각자 사역에 따라 달라져야 할 부분이 필요하지
만 기본에 대한 선교는 삶을 나누는 관계에 대한 것으로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으로 나아간다.

목회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고령층대상은 다른 방안을 쉽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다.

<구자현 조>

- 변화 예정인 사역 :

저희 조는 인터넷과 영상 Tool 보다는 인터넷 환경에 소외된 그룹을 찾아가는 것과 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나눔.

작은 그룹을 돕기 위한 사역들이 많이 개발 될 것 같음.

- 소 그룹 중심의 사역 전환 필요? :

여러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본질 회복과 선교사의 삶의 중심이 중요함을 말씀하심.

영상제작이나 SNS tool 보다 본질적인 사역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Derya), 나와 같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민 난민가정을 찾아 가서 방문교육 및 돌봄 교실로 돕고 있음 (김성희), 비대면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를 위한 사역을 찾아보자.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재무장하자. (황실리), 캄보디아는 인터넷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데이터 쓰는 것이 힘든 반면 소 그룹으로 모임이 가능해서 작은 그룹으로 모이고 있음 (최영애), 같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숙소들은 인터넷 환경에 소외되어 있어서 방문이 필요.

- 재정적 자립과 그 방안 논의

데이터 통신의 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 제자양육, 교회 개척 방해하는 사유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각 종족들의 언어와 문화적 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의 협력이 필요. 일대일과 각종 복음적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비대면 만남을 통해 각 민족에게 필요한 사역자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

<권피터 조>

1. 코로나 19 시대를 선교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교회개척과 제자양육에 대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

ㄱ. 이웃 사랑의 전제로 복음을 전한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실패하면 사역에 실패한다. 중요한 한 영혼을 위해 방벽이 전제로 된 사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어려운 지역은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로 이기에 이웃에 필요한 것을 채우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ㄴ. 소 그룹으로 가야 한다.

대중으로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오디오 성경 통독으로 소그룹 모임이 잘 진행되는 좋은 사례를 나누었다.

ㄷ.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인터넷,

SNS, 등등 미디어 사역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 언어와 읽고 쓰는 것이 어려운 사역 대상들도 있다.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 보다는 본질적인 예배, 말씀, 기도, 충실하여 각 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르. 공통점으로 movement 만들기

코로나는 죽음과 마지막때를 생각하게 하고 삶에 어려움을 통해 가난한 마음들을 만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기도 모임과 하나님을 찾게 되는 happening 이 생기는데 이것을 선교사들이 주도하지 않고 현지 믿는 분들이 주도하게 하여 말씀, 기도, 찬양을 인도하게 하고 전도로 이루어지도록하고 있다. 코로나가 심해져 모이기 어려울 때는 타겟팅을 한다. 지속적으로 SNS 로 연락하여 더 친밀해지고 마음을 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르. 관심의 플랫폼

코로나로 인해 SNS 가 더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 영상 제작, 앱 만들기, 유튜브 채널 만들기 등등 다양한 교육을 시작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이 무엇인가와 사역지를 더 리서치 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다.

2. 효과적인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이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감염 위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대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한 가정을 찾아 다니며 어려움을 함께하고 빨리 SNS 를 통하여 함께 모이고 삶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김성윤 조>

1. 미디어 활용으로 많은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었다. 특히 이슬람 지역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교회로 모이거나 만남에 제약이 많았는데,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보다 자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면 만남 또한 관계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전략적 소그룹 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난민 사역에 있어서도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다.
3. 현지인 리더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선교사 본인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현지인 사역자가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목회자와 같은 제도적인 체제만으로 부족하다. CPM과 비제도적인 부분으로 역량이 확장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5. 디아스포라 교회를 활용해야 한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뿐 아니라 난민들이 세운 디아스포라 교회와 협력해서 현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6. 선교지역이나 나라를 묶어서 전략적으로 선교센터를 구축, 온누리 선교사들이 팀으로 선교센터에서 현지인 사역자나 선교사를 훈련하고 양육해서 각 지역이나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되었다..

<김신화 조>

저희 조는 현재의 상황과 필요(고민)에 대한 위주로 나눔을 했습니다

1. 중동 선생님: 비즈니스를 하는데 보안과 코로나로 인해 대면은 신중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안정적인 믿음생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고민중
2. 러시아 선생님: ㅅ학교업무인데 현재 휴강중(ㅅ경통독과 필사를 진행중) 온라인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서 고민중인데 이를 진행해 줄 거나 컴퓨터 훈련해줄 전문가가 필요함
3. 한국 선생님: 난민센타업무. 난민교*개척 및 난민사역자양육을 목표로 하는데 코로나로 모임이 축소됨. 타 지역에서 교육컨텐츠(한국어, 영어, 신학 등)와 정보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오는데 온라인시스템이 안되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제자양육(난민사역자개발, 목회자, 언어 등) 위한 컨텐츠개발과 온라인시스템구축에 기도중
4. 인도네시아 선생님: M 직원훈련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온/오프라인으로 훈련하고, 소그룹으로 CPM 을 할 예정. 가장 큰 장애물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로의 어려움이다. 결국에는 믿음과 진정성으로 돌파해야 할 것임.

<김연경 조>

1. 대면 사역이 어려워진 상황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양육, 예배의 형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역에 따라, Zoom, WhatsApp, Facebook 등을 통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지속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먼 거리의 성도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그룹과 기도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들이 귀국한 빈자리에 현지인들이 리더쉽으로 세워지는 일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

이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현지인들이 본국의 선교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현지인 리더는 자신의 지역 성도들을 가능하다면 대면 방문하고 그들의 소식을 다시 온라인을 통해 본국 선교사에게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며, 선교지의 상황들에 대해 함께 지속적인 나눔을 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어떻게 현지인 리더십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해 현지인 스스로 제자 양육을 이어가는 길을 열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하겠다.

또한, 창의적인 대안을 논하기에 앞서, 공통적인 의견과 고민으로는 성도의 기본 훈련인, 말씀양육, QT나눔, 기도생활과 같은 경건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비대면 상황 속에서의 대책과 돌파구는 지역에 따른 고민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국가의 인터넷 감시가 높은 보안 지역, 닫힌 지역과 인터넷, 모바일 환경 자체가 비대면 사역을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인 지혜가 더욱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선교 단체와 NGO 활동이 활발한 열린 지역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비대면 사역의 가능성과 방법은 열려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많은 콘텐츠로 공격적인 활동을 벌이는 이단 단체들, 서구 선교단체의 재정 지원에 익숙한 환경 등이 돌파해야 할 어려움으로 언급되었다.

본부에 대한 제안으로는 CGNTV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적인 지원과, 선교사가 사역 초기부터 현지인의 자립적 모델을 세워 갈 수 있도록 본부가 지원, 독려해 주기를 바라는 점이다.

<김일환 조>

- 미얀마 한: 1. 일대일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2. 소그룹 중심의 사역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지인 중심의 사역을 계속해서 사역할 것이고 한 명의 믿음의 사역자를 잘 세울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한 명을 잘 만나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중요하다. 3. 재정적인 자립은 비즈니스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일자리도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4.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이 온누리의 집중 사역 영역 이라서 그것에 맞게 집중해서 사역하려고 하고 있다. 내 자신이 가장 방해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렇지 않고 내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태국 정: 코로나 이후나 이전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30년전) 때는 한국 선교사는 교회 개척을 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오랜 경험상) 고백하며 몽골의 사역이 잘 진행 된 것에 도전을 받았다.

은혜 국제 학교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많은 타격을 받았다. 발제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구역을 정리해서 사역을 이어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시대에 무언가를 완성하려고 하면 안된다. 우리시대에 어떠한 결과물을 보지 못하더라도 다음세대에 결과물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잘 잊지 말고 있어야 할 것 같다. 2대 3대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

- 협력이 쉽지 않다. 이유는 현지인들과 선교사들의 협력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현지인들도 우리를 좀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다. 일방적인 사랑은 좋은 협력을 만들 수 없다. 우리만 마음이 있다고 열매가 맺혀 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 좋겠다.

- 팔레스타인 정: 처음부터 현지인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소그룹 중심의 사역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이 현지인 사역자를 격려하면서 사역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창욱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다. 내 자신이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했다.

완전독립 국가가 아니어서 작지만 강한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핍박과 무슬림의 핍박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겠다.

<김한수 조>



인도네시아 사역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 구글 미트를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인도를 하였는데 점차로 현지인들이 리더로 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의 개념이 확장 된다고 보았을 때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유튜브의 내용과 PPT를 이용하고 있다. 한동대학과 연합을 하여 콘텐츠를 제공 받기도 한다.

단, 커뮤니티의 개념을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과제로 남는다. 인터넷을 이용한 소그룹이나 비대면 만남이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나타난다.

● 몽골 제자양육자 사역, 일대일 수료 대상자로 소그룹리더 양성을 하고 있다. 한국 체류가 장기화 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제자양육을 시도하였다. 인터넷 환경 때문에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사역을 진행하였고, 후에는 리얼타임으로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몽골은 교회가 많이 개척되었다. 선교사가 직접 개척하는 것은 자제할 만큼 성장기에 있다. 흩어지는 교회에서 소그룹을 담당할 수 있는 현지인 리더들이 있는 지가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양육자 과정에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일본은 소그룹교회이다. 모이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참여자가 생김. 한일연합사역이 활발히 발생. 코로나시대에 교회의 연합이 활발해짐.

● 풍당에 있는 콘텐츠 등을 이용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양육 자료들 중에 이단들이 제작한 것이 많으므로 건강한 콘텐츠가 있는 풍당을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 선교사들에게 권면하고 싶다.

● 선교의 원리를 이해하고 현지의 상황에 맞게 유연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사 개개인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박부경 조>

1. 코로나19 시대를 선교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교회개척과 제자양육에 대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대규모적인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로 들어서면서 할수 있는 사역이 많이 줄어들었다, 3년전에 t4t (교회개혁재생산훈련) 훈련을 받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대학생들과 진행을 했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훈련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대규모를 중심으로 했던 사역을 소그룹 중심으로 하는것과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고 양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학생들이기에 sms를 통해 양육과 나눔을 하면 될 것 같다. 또한 2-3가정과 예배하고 양육하는 전략이 될 것 같다....

코로나 직전에 튀니지에 들어왔고 통행금지로 밖에 못나가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낮에는 다닐 수 있어서 사람을 만나게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현지인들과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부모들이 못하게 하거나 모임을 못하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하는 것을 전환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못하고 전화가 안되는 곳이 있고 현장에서 현지인 사역자가 준비가 안된 경우가 있어서 현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 같다.

드림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한국교회상황..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케어하는 것은 전화심방을 하고 있다. 상황을 듣고 필요한 가정 있을시 방문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하고 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참석하며 답을 찾아가고 있다. 답을 찾으면 그대로 교회를 개척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기도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임에 빠지는 분이 없고 또한 현지에서 올려주시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수시로 받아볼수 있어서 축복이 되고 있다.

감비아.. 컨퍼런스도 줌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한달에 한번씩 기도모임을 통해 기도회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도 한집에 하나 정도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 번역한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성경번역 한 것을 유심에 만들어서 올 하여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유심을 나눠주는 전략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줌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것 어렵지만 모바일폰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신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필리핀에서 무슬림 사역을 했었는데 복음을 전한 자매가 세례를 받고 했는데 아직도 소그룹 모임이나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고 가난한 지역이라 돌보는 사역이든지 지역사회개발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지역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그룹 형태의 교회와 한사람 한사람을 양육하고 세우고.. 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좋겠다.

2. 효과적인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이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정교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 가정사역중심의 교회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화려한 절을 다니는 현지인들에게 또는 대규모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건물 중심인 교회에서 가정중심교회로 바뀌는 것이 해결책인 것 같다.

교회 안 믿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영상을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신방 정도로 모임이나 교제를 하고 있다. 그 외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다. 리더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방문을 했었는데 현재는 영상으로 바뀌고 있다. 현지인이 함께 참여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 간증을 했는데 그럴 때 참여도가 높았다. 현지인들의 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다. 영상으로 모임을 할 때 시간을 안 지키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영상으로 모일 때 모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순장으로 섬겼던 순모임의 형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프리카는 장애물이 인터넷인데 선교본부와 협의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거나 중고 휴대폰을 보급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후원을 받아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

인터넷 환경이 조성이 되면 친구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공동관심사를 나누고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소그룹 활동하면서 효과적인 것은 부부성경공부인거 같다. 부부들에게 성경적인 가정생활, 부부생활들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

인터넷이 되면서 무분별하게 많은 것들을 보고 유혹거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이나 강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사역도 괜찮을 것 같다..

<박창홍 조>

-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일대일로 더 자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 부활절 선물과 손 소독제 등 심방선물을 들고 방문할 수 있었고, 큰 공동체로 다함께 모이는 것과는 또 다른 개인적인 소규모의 만남을 더욱 선호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상예배로 전환되었고,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만남이 가능해짐. 통역자가 없더라도 미리 영상작업과 번역 작업을 하여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졌음. 다양한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복음전도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 온라인을 통해 일대일로 미팅을 하여 오히려 더욱 깊은 나눔이 가능해짐. 언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됨.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함.

- 코로나 시대에도 어떠한 지역은 아직도 스마트폰 보급이 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이 일반화되지 않은 사역지들이 있음. 실제로 아프리카 감비아의 경우, 코로나 시대에도 미디어를 통한 사역이 불가능하고, 코로나의 위험을 안고 대면으로 만나야만 사역이 가능함. 따라서, 본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사역을 위한 톨과 소스 제공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밖에 사역이 불가능한 사역지도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음.

- 무슬림 지역을 위한 코로나 시대의 전략이 부재함. 특별한 사역 대상에 맞는 사역전략의 연구와 지원이 필요함.

<배윤주 조>

1. 코로나19 시대를 선교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에 대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 제주 센터 : 중국인 지도자 훈련 센터로 활발히 사역할 꿈을 꾸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는 제주도 내에 있는 중국 교회 15개와 지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안되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을 찾아서 진행하는 중이다. 제주도라는 특징적인 장소와 환경으로 센터에서 훈련 등의 모임과 숙소를 활용할 장점이 있다. 때문에 이 센터의 역할을 힐링과 훈련으로 컨셉을 잡고 깊이 있는 연구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오늘로 6번째 모임을 했고, 힐링과 선교파트를 중심으로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오픈하려고 한다.
- 강의 중,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의 내용에 감동했다. 국가별 상황이 다르겠지만 원리적으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나의 사역에서도 적용해서 교회 개척을 잘 했으면 좋겠다.
- 한인교회 사역이라 주제와는 좀 동떨어질 수 있지만, 이곳의 교회가 현지인들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회와 인접지역의 이주 노동자 대상 사역을 구상 중이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와 네트워크, 어렵지만 직원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 무슬림권은 SNS 접촉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사역의 한계와 장애가 가장 크다.
- 코로나로 현지의 선생님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현지의 난민센터 사역을 8월부터 원격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주로 회의와 멘토링의 역할이다.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신뢰가 쌓이기 전에 비대면으로 사역이 진행된 것이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일부러 하려니 어려움이 많다. 인도에서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다가 만난 제자가 있는데 더 이상 대면할 수 없게 되니 화상으로라도 끊임 없이 만나기를 요청했다. 멘토링이 가능하다. 그 지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도록 도우며, 격려와 가이드를 하고 있다. 이 두가지를 비교해 볼 때 무엇보다 현지인과 먼저 신뢰를 쌓으면 온라인을 사역의 매개체로 삼고 할 수 있다는 경험

을 했다.

- 현재 거주지가 너무 외진 곳이라 전화와 시그널이 없어 온라인 사역, 비대면 사역이 정말 어렵다. 더군다나 현지 교회가 말씀으로 잘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현지인들이 크게 느끼지 않는다. 온누리 입양 종족인 베다족 사역인데 2016년에 왔을 때 이미 현지인 사역자가 있어서 그들을 도와 동역자로 섬기는 중이다. 가장 어려운 점은 현지인들의 사고와 진행 방법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이다. 대면으로 사역을 해도 현지인들이 이전에 봤거나 아는게 없어서 실행이 잘 안되는데, 비대면 사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소수 정예의 모임을 더 강화하게 되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할 수 지속적으로 소수로 만나 돕고 있다.
- 코로나로 인해 구호 사역의 길이 열렸다. 이것으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 이전에는 사역을 금지했던 곳인데 코로나로 인해 구호사역으로 필요들이 생겨 한시적인 사역의 문이 열린 지역들이 있다. 이런 곳의 사역이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효과적인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이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 개인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이전에 사역했던 곳과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의 다시 익혀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힌두권에서 무슬림권으로 옮기면서 현지어를 새로 배우는 것, 사역의 형태도 교회개혁에서 난민 사역으로 바뀌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깨달았다.
- 특히 강의 마지막에 코로나 시대에는 플랫폼 사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된다. 플랫폼 사역에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전에는 고민이었으나 이제는 필요하고 이것이 또한 난민 사역의 돌파구이다. 오히려 재정을 들이는 교회 개혁이 아니라 강의 중에 하신 말씀처럼, 1. 현지인에게 교회를 지어주지 말고 그들 스스로 짓게 하는 것, 2. 처음부터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토착화 사역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모임과 어디에서부터 그것을 교회로 봐야 하는지 경계선을 지혜롭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 인프라와 어느 정도 열린 몽골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다. 온라인과 현지인들의 상황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 곳에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씨름하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아프리카 오지처럼 어려운 환경의 접근지에는 그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대일과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현지인과의 그런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선교사에게 기다림은 숙명인 것 같다. 정말 오래 기다리다 지칠 때쯤 반응이 온다. 선교사가 현지에서 2개를 깨우치면 다시 10개의 모르는 것이 생긴다. 괴롭지만 그들의 때를 기다리면서 거부감

이 없이 현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신동빈 조>

<질문>

<T국 A선생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 사역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사역 지역을 동쪽 지방에서 서쪽의 수도로 옮기면서 관계를 갖고 있던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역의 한계가 있어, 뜻이 있는 현지 청년들과 협력하여 현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활용하여 사역을 확장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

<S국 B선생님>

◆대면사역으로 진행하던 큐티 사역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다.

-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큐티클럽을 조직하여 큐티 사역을 진행하였다. 평균 20-30명의 학생이 참여 하였었다.
- 코로나19 상황 이후 학생들이 집에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해 진행하였는데, 평균 70-8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이는 대면사역 때보다 더 많은 수가 참여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 본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가정에 같이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큐티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A국 C선생님>

◆모든 스쿨을 소그룹 비대면사역으로 전환하였다.

- 1월 이후 모든 스쿨을 비대면사역으로 전환하였다. (9월 24일 스쿨을 재개하였으나, 약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어 다시 문을 닫았다.)

- 규모가 큰 공동체를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평소에 단체의 리더들이 외부로 강의나 세미나를 참석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베이스에 계속 머물면서 베이스의 상주 스태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았고, 우리의 비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립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IT 기술의 전문성의 부족

- 온라인 비대면 사역을 위해서는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단체나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매우 큰 도움이 되긴 하였지만, 반대로 큰 한계를 느낄 수 있었다.

◆비대면사역을 위한 현지 인프라 부족

- 비대면사역을 위해서는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PC, 태블릿, 핸드폰 등)가 필요하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환경이지만, 대부분의 선교지의 경우 현지인들이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리더십 훈련의 부족

- 기존의 많은 사역들이 한 사람의 선교사 혹은 현지 리더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소그룹 형태로 나누어 진행을 하고 있다. 소그룹을 맡아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갖추어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리더십에 대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를 하고 사역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 지역별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콘텐츠 제작의 전문가가 협력

- 금일 발표하신 이철희 선교사님은 몽골에서의 교회 개척에 대해 나누어 주셨다. 큰 감동이 있었으며 한편으로 도전이 되었다.
- 그러나 몽골과 상황이 전혀 다른 예를 들면 무슬림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 각 권역별 혹은 지역별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또한 선교사 한 사람 한사람이 따로따로 비대면사역을 위한 준비(예 : 영상제작)를 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TF팀이 구성되어 선교사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팀이 그것에 맡게 콘텐츠를 제작하여 선교지에 활용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심영근 조>

주제 1. 코로나 19 시대를 선교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에 대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 큐티중심의 교회 사역으로 대중 모임을 통한 교회성장이 아닌 개인영성 개발을 중점적으로 사역하여 흠어지는 교회로 방향을 정한다.
- 온라인 사역을 통해 사역이 오히려 활기를 띄고 확장될 수 있음을 경험함.
- 코로나 시대에는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그룹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 다수가 아닌 소수에 집중해야한다.
- 비대면 사역이지만 오히려 대면사역 때보다 더 자주 연결이 되어서 친숙해질 수 있다.
- 줌과 같은 온라인으로 만나 일대일제자양육 등의 집중교육을 진행한다.
- 온라인 사역의 장점을 극대화 하도록 장점을 발굴하고 연구해야하며 전문적인 팀을 만든다.
- 온라인 사역을 위한 전문 장비들과 사용법에 대해 익힌다.
- 코로나의 발생원인을 연구하여 교회가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등 선교사의 관점이 변화될 필요도 있겠다.
-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되고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말씀의 실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나누는 것을 통해 복음적 토양을 만들어야한다.

주제 2. 효과적인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이며, 이것을 돌파하기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 인터넷환경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적 환경이 열악하여 온라인사역으로 연결하기 힘든 부분이 가장 큰 장애이다.
- 인터넷 등의 국가적 인프라는 점점 발전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적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교회가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선교지로 모아서 보내주는 방법 등을 고안하면 좋겠다.
- 교회와 선교사 자신 안에 있는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에 대한 선입견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변화와 확장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 선교사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종교적인 용어로 접근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부감과 언어적 장벽을 생각하여 용어사용에 한번 더 고심해야한다.
- 대면이 힘들어질 수도록 전화 등의 비대면 연결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리더들을 격려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한다.
- 전염의 위험성이 큰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야외에서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대면모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대중 모임을 지양하고 개인 심방을 통해 밀착양육을 한다.
- 비대면 사역과 대면 사역을 반드시 병행해야한다.
- 비대면 사역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면 사역을 병행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적은 시간과 인원수의 대면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집중력있는 대면 모임을 기획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진 조>

성전중심에서 말씀중심으로 사역의 방향을 조정해야겠다.

- 선교사는 코치의 역할, 현지인을 사역의 중심으로 세우자.
- 언어를 더 잘 준비하자. 온누리의 콘텐츠를 잘 활용하려고 해도 언어가 되어 가능하다.
-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비롯 필요한 것들을 더 배우고 준비하자.
- 기본에 충실하자. 일대일, 큐티, 소그룹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 일대일 심방으로 꾸준히 관계한다. 전화, 영상 등을 활용한다.
- 온누리교회만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선교를 해야겠다.

<어영선 조>

복음전도 금지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현지 교회와의 협력이 중요함

- 사역 초기부터 개척과 제자 훈련으로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 하다
- 인터넷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비대면 사역 발굴을 해야한다
- 선교사가 주도하는 개척은 이양이 어렵다. 처음부터 현지인이 주도적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선교사 주도로 교회를 개척할 경우 현지 사역자와 성도들의 선교사 의존도가 너무 높아 아무리 제자 훈련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양이 어려워진다
-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렵다면 가는 것도 어렵다. 오히려 찾아가는 것보다.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비용이 덜하다
- 소그룹중심으로 사역해야 한다
- 교회개척보다는 제자훈련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선교나 개척에 비전이 있는 현지 젊은이들을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추천 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쌓아야한다
- 비대면이기 때문에 현지 담임목사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에 대해 모르기때문)

<유지환 조>

영국사역 중심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자양육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인터넷이 발달한 국가이지만 사역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부분에는 오히려 한계가 있다. 사람들은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만나기를 선호하는 것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지만 미디어가 주는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대면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가 힘들다. 인터넷이 중요한 톨이 될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대면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엄청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장애물이라면 선교가 테크니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선교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맞춰서 사역을 해야 한다. 너무 코로나 상황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 사역을 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남양주 온누리 장로님

인도, 네팔사람들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음. 물리적 코로나는 끝날 수 있어도 영적 코로나는 계속 갈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인에 의한 교회개

척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대면사역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앱을 개발하라. 그러나 하이브리드 사역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 소그룹 중심의 양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일대일 등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복음의 씨앗이 자란 후에는 온라인 및 여러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유익하다.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복음전파와 제자양육에 장애라면 두려움이라 생각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지혜와 담대함을 얻어 선교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제자를 낳는 사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생명 조>

- 코로나 변화에 대응하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음. 현지인에게 이양을 하고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음. 현지인 주도형으로 가도록 이양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역규모를 줄이기도 했음(커피와 출판).

- 터키 대면모임은 열린 상태. 현재 대면과 비대면 혼재되어 사역중인 상태임. 난민들 사역을 대상으로 이란과 현지인 교회 모임을 돕고 있음. 터키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세례를 받는 분들이 더 많아졌음. 온라인을 통해 젊은 분들이 더 많아지는 고무적인 상황임. 터키 전역에 사역자들간에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연합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음.

- 일본 차세대사역(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하고 있음)중임. 큐티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음. 소그룹은 나이많은 분들은 어려워하고 계심. 여러 일본인 현지 교회가 모여서 청소년집회(봄, 가을)를 열었는데 못했다가 이번 가을에 유튜브로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음.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함을 느낌.

- 가정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시도하고 있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일대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일본).

- 이슬람지역(모리타니아)에서 더멋진마을 개발 중임. 총체적인 마을의 발전을 위해 준비하는 중임.

- 제한접근지역(동티벳) 및 오지, 고산지역 사역 중임. 교회개척 전략을 적용하기 힘든 지역임. 인터넷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 코로나로 인해 접근이 어려움. 동티벳은 중국에 속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통제가 매우 심한 상황. 일대일을 통해서만 사역이 가능함. 온라인사역은 사실 거의 불가능함. 현지인이 가진 모바일 메모리칩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양육하고 있음. 통신상

으로도 매우 오지인 지역이어서 제한이 많음.

- 북인도 카슈미르지역에 있다가 지금은 델리 무슬림들 섬기고 있음.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에 제한되어 살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만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음. 무슬림 변증 사이트들을 링크해서 보내기도 함. 코로나가 많이 퍼졌을 때에는 온라인 줌을 통해서 모였음. 외부인들 경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스크 만드는 걸 가르쳐주고 교제할 수 있었음. 손세정제를 현지인들에게 권해주면서 대화를 시작하기도 했음. 기도처를 오픈해서 힌두교인, 무슬림들이 와서 기도하도록 초대하기도 함.

- 기존 현지 인도교회 선교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했음.

- Virtual 아웃리치가 참 효과적이라는 생각함. 티셔츠 디자인을 하고 현지에 보내도록 제작해서 함께 옷을 온라인 상에서 입고 함께 온라인으로 아웃리치로 사역함. Red bag으로 표시. 빈민촌을 빨간 가방을 걸어두면 도움을 요청하는 sign으로 여기고 대면 사역을 함.

-온라인으로 사역할 때엔 Big Brother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중국, 동티벳)가 있어서 늘 고민하고 있음.

<이원상 조>

1. 코로나19 시대를 선교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에 대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1) 코로나시대에 맞춰 변화되고 있거나 변화 예정인 사역들을 나눠보시오.

(2) 대중 중심의 사역에서 소그룹중심의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가?

- 선교사발굴파송에 집중하고 있다. 15명 발굴하여 지금은 4명의 선교헌신자를 zoom으로 양육하고 있다. 영상녹화를 비대면으로 인, 유튜브제작을 통해 사역하고 있다. 센터 중심에서 제정비해서 5-6명정도의 소그룹으로 양육하는 전략으로 바꾸고 있다. 교회개혁은 4명중의 한 형제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을 선택했다. 미얀마등의 주변지역으로 파송해서 교회개혁해 나가고 있다.

- 마스크 쓰고 대면을 소그룹으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한다. 올해 세미나와 토의 계획이 코로나로 바뀌게 되면서 유튜브등을 통해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 창의적 이라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사역은 현지교회중심의 접근을 통해 그 중 열심있는 젊은이들과 교제와 친분을 통해 성경공부와 기도모임 전도활동을 한다. 3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비대면(왓츠앱, zoom등)으로 계속 교제하며 교육(훈련)을 인터넷(구글스쿨 등)을 통해 방향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 비대면 인터넷 등의 사역에서 댓글(악성), 신분이 들어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있으나 신분보호 부분이 필요할 때는 현지인 중심으로 하면서 나아간다.
- 코로나 전부터 비대면, 대면사역을 해왔다. 비대면으로 처음에 만난사람들과 대면으로 만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마음을 여는 것에 또한 다른 점들이 있었다. 비대면으로만 갈 때 어떻게 될지에대한 것이 고민이다. 다른 분들의 많은 경험 사례들을 듣고 싶다.
- 이란, 아프가니스탄등에서는 교회 개척 등이 이루어 졌다. 온라인 상의 다양한 접근도 경험하였으나, 그러나 한계점이 있고, 다른 분들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 가정중심으로 가고있다. 가족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단위로 예배와 교회로 가야하는 것이 고민, 아버지들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믿는 이웃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있다.
- 페이스북등의 툴을 사용, 전화기나 인터넷 사정이 어려운 지역이 있기도 해서 어려움이 있다.
- 한국에 와서 온라인사역을 처음 접했다. 전문가는 아니므로 지금은 들어서 배워야하는 상황이다. 번역사역을 하는데 지금 온라인사역으로 소통하고 있다.
- 고아원사역으로 몽골 아이들 입양하였고 고아원에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데 도구보다 마음이 가면 서로가 신뢰와 사랑이 전달 된다는 것을 느꼈다. 같은 온라인이라 해도 나의 마음이 만날 대상을 기다리고 사랑하느냐와 사역의 의무감으로 만날 때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한다.

2. 효과적인 교회개척과 제자양육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이며, 이것을 돌파하기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3) 선교사 주도에서 현지인 주도로 사역을 전환하고자 할 때 재정적 자립과 함께 그 방안을 논의해 보시오

(4) 제자양육과 교회개척을 방해하는 개인적인 사유를 나눠 보시오

- 비대면 사역의 한계점에 대해 고민이다. 서로 다 모르는데, 주중에 1대1만남을 연결했다. 서로1시간씩 대화하면서 지금은 매우 친밀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 현지인으로 넘어갈 때 주저할 수 있는데 과감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현지인에게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 비대면이라도 마음을 합쳐 기도하자.

<이정미 조>

박(멕시코)

1. 신학교 사역 중인데 전체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3 월부터 7 개월째) 잘 적응 중, 페이스북, 유튜브에 강의 내용을 공유했는데 쿠바의 기독교인들이 온라인 자료를 보고 연락해 와서 교제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비대면 상황이 복음의 공유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소그룹이 장점이 많다
3. 재정적 자립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 도시에서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물질적 도움을 얻는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정 지급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일대일로 현지인과 후원자를 연결하는 방법 고려할 수 있다.
4. 교회 개척에 선교사가 성육신의 삶을 산다면 좋지만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교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나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인도네시아)

1. 람퐁족 사역 중인데, 몇 명의 열매를 얻어 양육 중이고 잘 자라가고 있다. 교회 개척이 필요한데 한 지역을 더멋진 세상과 함께 동역 중이다. 플랫폼 사역이 필요한지 논란이 많았지만, 어떤 마을의 경우 20 년을 통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점차 마을을 개방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상황으로 마을이 부분적으로 통제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긴급 구호 사역을 통해 마을 방문이 가능해졌다. 소외 계층, 유아들, 과부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구호품을 전달했다. 람퐁족이 매우 폐쇄적인 마을이었는데 기도 요청하고 어려운 상황을 나누는 것을 보며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 방문 후 SNS 로 말씀을 전달할 때 예기치 않게 말씀을 받아들인 경우가 생겼다.
2. 코로나 19 상황으로 오히려 마을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가정 방문을 통해 마을에서 암에 걸린 22 세 자매를 만나 수술 받도록 주선해 주기도 했다. 코로나 19 는 어려움도 가져왔지만 새로운 접근 통로를 제공해주었다. 가정 단위로 주민들을 방문하고 현지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 개척하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
3. 람퐁족은 원주민이고, 자바족은 자바섬에서 이주한 민족인데 양 민족간에 갈등이 있어서 교회 개척에 두려움이 장애가 된다고 느꼈다. 현지 성도들이 함께 사역에 동역할 때 마음속의 두려움을 없애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

김(터어키)

1. 2003 년에 파송, 2 년전 사역을 옮겼는데 비자에 어려움에 봉착하여 추방되었는데, 다시 입국이 되어 앙카라에서 새롭게 사역을 개척하여 1 년 지났다. 코비드 상황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적은 중에 타격이 많다. 현재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이지만 아직 관계가 안정적인 단계가 아니라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비대면이어서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소수로 예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터어키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지방으로 사역자를 파송했지만 영적으로 공급하지 못해서 선교사의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방문이 어려워서 사역적 진전이 어렵다.
2. 60 대의 연령이라서 젊은 층 사역자들과 협력이 필요한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임훈 장로

이철희 선교사가 교회 개척 단계에서 처음부터 소그룹 위주의 사역으로 시작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 소그룹 위주의 사역이 교회가 배가할 때 아주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는 대규모 집회라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소그룹으로 교제와 목양하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이준욱 조>

1. WEC 국제단체 소속으로 일본에서 사역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일본 교회 모임 많이 줄었다. 일본선교의 역사는 70년이 되었고 현지인들에게 교회의 이양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양까지 했지만 농촌 부분은 그들에게 '선교'의 비전까지는 심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WEC JAPAN 안에 4년에 걸쳐 일본에 선교부를 개척했다.
2. 이스라엘 : 코로나 상황 심해서 몇 주간 닫힌 상태임. 오래된 선교사들 거의 추방당하고 7년 이하 된 선교사님들이 활동중임. 유대인, 아랍인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화해를 위해 일하고 있음. 코로나 이후 zoom으로 일대일, 기도모임, 성경공부 교제를 하고 있음. 통신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도 zoom으로 교제하면 거기에 큰 은혜가 있음. 형제들이 너무 그리울 때는 공원에서 만나서 바비큐도 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제목도 나눔. 건물 안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은 10명 이하 모일 수 있어서 소그룹이 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zoom으로 모이기를 힘쓰자!". 외출은 슈퍼마켓, 병원에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슈퍼마켓에서 만나 교제함.
3. 인도네시아에서 CGN TV 사역을 하고 있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두 군데나 개척

하고 사역하다가 인도네시아에 감. 인도네시아는 400년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교단과 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므로 그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개혁은 현지인 사역자가 할 수 있게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교회개혁 사역은 하지 말자!", 한국 사역자는 현지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는 사역자와 전도사, 신학생들이 많은데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양과 출구전략이 용이해진다.

4. 중국에서 소그룹을 통한 교회개혁 사역을 했다. 그들을 전도해서 소그룹으로 양육했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들이 실수 하더라도 좀 더 빨리 그들이 다른 소그룹을 개혁하도록 믿어주고 도와주었다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든다.
5. 모잠비크에서는 현지인 사역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위생교육도 시키고 있다고 함. 대면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다가갈 때 쉬울 것임. 또한 현지국가의 정책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1단계, 2단계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데 현지국가도 마찬가지이니 민감하게 파악해서 잘 대처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팀의 연합도 중요하지만 타단체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봄.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협력할 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현지를 떠나 있다면 현지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아주 중요.

<임현주 조>

- 현재는 안식년으로 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를 받지 못해서 국내에 지내고 있으며, 현장에서 코로나는 겪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는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했었다. 세미나 형식으로 사역해왔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소수정예의 모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소수에게 집중하여 자주 만남을 갖고 확실한 제자로 삼는 사역에 대해 강의 내내 생각하게 되었다.
-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리더십 위주로 소수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
- 제자훈련과 QT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한다.
- 요르단에는 최근 매일 천 명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모스크 예배도 멈춘 상태다. 그래도 최근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서 '예수' 영화나 복음 관련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제 2주 정도 되었다. 2만5천 명의 팔로워가 생겼고, 댓글도 20여

개 달렸다. 좋아요도 130명이 눌러주었다. 그러나 댓글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슬람 관련 내용이고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는 내용들이다. 아직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은 없다.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에 대한 다음 단계의 고민은 보안문제이다. 지금 접촉하고 관심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접촉할 수 없다. 다음 단계를 위한 기도와 지혜가 필요하다.

- 레바논의 선교사님은 현재 6개월 정도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접촉한 사람들을 1차로 초대하고, 2차 3차 검증을 거쳐서 개별적으로 성경공부를 한 뒤에 그룹 단계로 가는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 벌써 2명의 세례자와 성경공부 그룹 2개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무슬림 사역자로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다.
- 미얀마의 경우도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내가 사역하는 시골 마을은 그래도 비교적 코로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다. 그래도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인따족 차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모임 장소를 다시 정비하고 있는 기간이다. 미얀마의 경우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고 인터넷 상황도 좋지 않아서 비대면 사역보다는 소그룹 모임 사역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할 것 같다.
- 과테말라에서는 소그룹 5개로 나눠서 모임을 하고 있다. 과테말라도 인터넷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한 가정 당 한 개 정도의 핸드폰을 갖고 있는 편이다. 이번에 본부를 통해 5개의 핸드폰을 후원받아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주어서 비대면 사역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이전처럼, 아이들 대상으로 피아노, 영어,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다. 현지 리더 10여 명과 비코리아 사역도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줌으로 비코리아 사역도 확대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총평: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 일부는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서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안들리세요'를 외치며 시간을 뺏겼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중간에 나가셔서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조장 포함 5유닛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이 두 유닛이었고,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이 두 유닛이었습니다. 비대면과 인터넷 사역보다는 소그룹 사역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것과 코로나 이후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는 사역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돌아갈 수 있으면 소그룹 모임으로 사역을 지속해야겠다는 의견과 현지인 리더를 세우겠다는 의견은 대부분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 사역지에서 선교사의 역할은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개척자의 입장에서, 파트너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그들을 도울 때 효과적인 열매를 지속할 수 있다.
- *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모습을 그리며 현지인의 양육을 해야한다.
- * 현지언어를 익혀 문화를 빨리 적응하며 현지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 * 현지인을 동역자로 세울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발견한다. 하지만 한명이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열매가 생겼음을 고백한다.
- * 본질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바르게 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무슬림 차세대사역을 준비하며 당장의 열매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 코로나상황에서 한국에서 외국인교회개척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접촉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코로나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었다.
- *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뿌리가 없는 교회는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뿌리는 세우는 교회, 말씀으로 무장되는 교회는 더욱 더 부흥하는 것을 사역지에서 경험했다. 기본에 충실할 때 교회는 더욱 부흥할 수 있다.
- * 선교사는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심으로 가지고 사역하는 태도가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다.
- * 현지인을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사역지에서 적용했을 때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토론을 마치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 다양한 사역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한 많은 사역 가운데 교회개척과 양육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힘을 집중하여야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치윤 조>

-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필요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번 선교사님들을 위해 진행한 온라인사역을 위한 강의는 너무 좋았다. 따라서 선교사들에게 인터넷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변화와 통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인터넷 상황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 온라인 사역은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다.

교회개혁이나 제자양육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질병이나 경제적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제도 언급 되었지만, 언어적인 어려움이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의 큰 장애물이다. 선교언어와 종교언어는 높은 차원의 언어로서 선교사들이 극복해야할 장애물 중에 하나이다.

*현지인에 의한 교회 자립 가운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재정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헌금에 대한 교육이 미진할 때도 있더라. 따라서 현지인인 교회를 세우고, 자립해감에 있어서 헌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 우리가 외형적인 변화를 생각하기 보다 우리 안에 변화를 먼저 생각하고 시도한다면 교회개혁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현지인에 의한 사역을 해 가야 하는 상황에 있어 무엇보다 선교사와 현지인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

<조금수 조>

코로나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어려운 현실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의 위기가 기회의 시작이고 미래를 결정해 줄 것이다.

코로나시대의 선교적 돌파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1. 소그룹중심의 제자훈련에 집중하고 셀교회 제자훈련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2. 신앙교육에 있어서 교회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모델과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겠다
3.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온누리의 큐티, 일대일, 순교육과 같은 기본기를 세워주는 교육의 강화와 신앙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교회를 개혁하고 세워가며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진행하는 사역자 별 사례들을 정리하자면

1. 온라인을 통한 매체 사용을 통해 소그룹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본부에서 교육해준 영상제작기술이 강의자료를 만들어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더 많은 활용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지원되길 바란다
2. 온라인을 통해서 아웃리치를 계획하였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현지 찬양과 언어를 교육하고 현지를 소개하는데 좋은 피드백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겼다

3. 온라인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일방적인 교육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계성과 깊은 교감과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온라인 원격교육이 가정에서도 지속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는 성경통독, 필사, 기도문 등의 자료물과 과제들을 줌으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교감하도록 노력한다
5. 선교지에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이 동일하지는 않다. 난민사역을 할 때 난민은 찾는자들이 없기에 한 가정씩 대면을 통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가는 사역에 주력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우울과 불안지수가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거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해줌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진행하여 사람은 비접촉이나 찬양과 기도로 접촉할 수 있도록 사역적 시도를 하고 있다.
6. 영국은 위기관리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바라기는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이 복음전달의 기회가 되도록 그들을 돕고 사역하고 싶은데 콘텐츠를 개발하기가 어렵다. 동역자들도 주변에 없기에 바라기는 본부에서 코로나로 시달린 정서적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온누리가 가진 내적치유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영어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해주면 좋겠다. 콘텐츠개발에 따른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에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
7. 준비된 교육내용이 기술의 도움으로 제자양육에 효과를 내도록 다양한 콘텐츠개발이 있으면 좋겠다

<홍명희 조>

1. 사역초기부터 현지인과 출발을 함께 했기에 자연스럽게 현지인 중심의 사역이 이뤄졌다. 교회 개척과 제자양육에 있어 오늘의 주제발표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사역의 전환이 요구되는 선교현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사역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는 급한대로 현지인 청년사역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잠깐 모면할 문제가 아닌 것. 인터넷을 못하면 선교를 못한다는 손충성 선교사님의 논평에 깊이 공감하며 이제부터라도 비대면선교를 위한 준비(인터넷관련기술)를 해야겠다.
2. 현지의 특성상 교회개척은 선교사나 목회자가 아닌 현지 평신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열정과 신앙의 깊이를 붙들어 줄 신학적, 성경적 지식이 부족함도 있다. 코로나로 인해 대중 사역이 어려운 지금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현지 사역자들의 이러한 필요를 선교사들이 채워줄 수 있다면 현지와의 건강한 협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3.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사역의 필요가 요구 되고 있지만 현지의 인터넷보급의 역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한 현실이다. 훈련이 중단된 1000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현지인 선교사들이 교육영상을 제작해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직접 제자들을 방문하여 소그룹으로 훈련을 이어가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4. 몽골의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이 철저히 현지인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재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과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시스템화 했다는 것이 놀랍다. 선교사가 각자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던 때는 지났다. 자기가 속해 있는 권역이나 세계적인 선교의 큰 그림을 그리며 연합해야 할 것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선교 툴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19 시대와 같이 비대면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일 일어날 때는 선교사 각자의 역량 발휘가 더 필요할 때인 듯. '내 사역'이 우선이고 전부라는 생각은 이러한 연합과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 이다.
5. 그 밖에 사역의 장애물로 현지 언어(사역언어)의 난제가 토론 되었지만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임으로 제외하였음.